

제정(霽亭) 이달충(李達衷) 산문의 서술방식 연구

김영미(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과제(破題)의 방식을 통한 제목의 재해석 |
| 2. 작중(錯綜)의 방식을 통한 풍간(諷諫) | 4. 결론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정 이달충(李達衷, 1309~1385)¹⁾의 산문 분석을 통해 이달충 산문의 주요 서술방식을 밝히는 데 있다. 이달충은 고려 후기 전형적인 신홍사대부 계층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득권인 권문세족과의 갈등, 원나라와의 종속적인 관계, 성리학이라는 신유학의 흐름, 개인적으로 공민왕 당시 막강한 권력신이었던 '신돈'과의 갈등 등 고려 후기의 혼란하고

1) 이달충은 고려 충선왕 원년 기유년(1309년)에 첨의참리 천(僑)과 연창군부인 박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8세가 되던 해 1326년(충숙왕 13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사관을 거쳐 정언이 되었다가 성균궐주에 이르렀다. 1339년 31세 때에는 좌사보로, 1348년 40세 때에는 이부도감판사가 되었으며, 1352년(공민왕 원년)에 전리판사가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감찰어사를 거쳐 호부상서가 되었다. 50세가 되던 해인 1358년(공민왕 7년) 호부상서로서 동북면 병마사로 나가기도 했으며, 58세 때에는 명유로 알려져 밀직제학으로 발탁되었으나 신돈의 중상으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계림부윤이 되어 사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림윤으로 1385년(우왕 1년) 76세에 타계했다.

불안정한 정치·사회·학문적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글로 표출하였다. 그의 문집은 조선 세종조에 그의 손자인 강원도 관찰사 이영상(李寧商)이 춘천에서 처음으로 간행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霽亭集』²⁾은 『동문선』 및 『동국여지승람』 등에 산일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

그간의 제정 이달충과 그의 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달충 혹은 이달충 문학에 대해 직접적인 분석은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이달충의 이름과 작품명이 언급된 논저들³⁾이 있다. 이를 제외하면 이달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초기 연구로 이정자의 「제정공 이달충문학」⁴⁾은 제정 이달충의 문학연

2) 현재 전하는 『霽亭集』은 모두 4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머리에는 이인행(李仁行)이 쓴 〈霽亭先生文集序〉가 실려 있으며, 권1에는 부「賦」, 「礎賦」, 「思亭賦」 2편과 시 35편 52수, 권미에는 補遺한 이곡의 시를 차운한 「次李稼亭觀平海越松亭韻」 1수가 원운과 함께 실려 있다. 『霽亭集』 권2, 권3에는 문(文)이 실려 있는데, 권2에 표(表) 11편, 잡(箴) 2편, 명(銘) 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3에는 1편의 기(記), 2편의 서(序), 1편의 설(說), 1편의 발(跋), 2편의 제문(祭文), 2편의 묘지명(墓誌銘)이 실려 있다. 『霽亭集』 권4는 〈부록〉으로, 1753년(영조29년) 권상일(權相一)이 지은 제정의 행장 및 『고려사』에 실려 있는 본전, 척록(欸錄)의 구보(舊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도 추록(追錄) 및 이시원(李時源), 이종재(李宗宰), 이벽수(李璧秀) 등이 쓴 발문이 각각 함께 실려 있다.

3)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2-중세후기 문학』(4판, 지식산업사, 2005, 223-225쪽)에서 이달충에 대해 ‘시대의 고민에 대처하는 자세가 온건적’이라고 하며 ‘유학을 신봉했지만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山村雜詠」, 「村中四時歌」, 「雪軒鄭相宅青山白雲圖」 등의 시와 「礎賦」 등의 제목을 언급하고 있다. 또, 「고려시대 사부 연구」(김진경,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92면.)에서는 고려시대 사부 작품들을 개괄하면서 〈유가적 실천 덕목에 대한 鑑戒와 유가적 도의 천명〉의 항목에 이달충의 사부 두 편 「礎賦」, 「思亭賦」을 분석 없이 제목만 언급하고 있다. 그밖에 「여성화자의 유형과 존재론적 의미-고려시대 한시를 중심으로」(박영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10면.)에서는 이달충의 「田婦嘆」이 인용되기도 했다.

4) 이정자, 「제정공 이달충문학」, 건국대 대학원 석사, 1992. 이 논문은 2006년에 『제정집』 서문과 『제정집』 권4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의 번역과 원문을 함께 실어 『

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문학사에서 이달충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이달충의 문학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시만 다룬 점, 그 작품 분석이 초보적인 점, 번역의 가독성이 부족하고 오역이 많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단편 논문으로는 김성언의 「이달충의 삶과 시(其一)」⁵⁾가 있다. 이 논문은 이달충의 출생과 가문, 벼슬살이, 『제정집』의 서지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달충의 전기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최경환의 「이달충의 〈村中四時歌〉와 연작시의 구성원리」⁶⁾는, 「村中四時歌」를 통해 연작시의 구성 원리를 탐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달충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전기적 연구에서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다음, 김동욱은 「제정 이달충의 생애와 문학세계」⁷⁾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논문을 고려 후기 다른 작가들에 대한 연구논문들과 함께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했다.⁸⁾ 이 책은 고려후기 사대부들을 작가별로 나누어 그들의 생애와 문학을 조망하고 있다. 이달충보다 약간 윗세대이거나 동시대, 혹은 약간 아랫세대의 고려후기 신진사류들을 다루고 있다. 고려후기 특정 작가 편향적인 기존 연구와 달리 고려 후기의 여러 문인을 작가별로 다루었다는 점, 고려 후기 신진 학문으로 등장한 사대부 계층 일반이 공유하고 있던 학문적, 문학적 특성 속에서 이달충을 거시적으로 개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려후기문학 연구는 조선조 문학연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략하며⁹⁾,

제정공 이달충문학』(국학자료원, 2006)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 5) 김성언, 「이달충의 삶과 시(其一)」, 『한국한시연구』 3, 한국한시학회, 1995.
- 6) 최경환, 「이달충의 〈村中四時歌〉와 연작시의 구성원리」, 『외대논총』 19, 부산외국어 대학교, 1998, 55-84면.
- 7) 김동욱, 「제정 이달충의 생애와 문학세계」, 『어문학연구』 4,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6.
- 8) 김동욱, 『고려 사대부 작가론』, 박이정, 2004, 185-227면.
- 9) 이종문(2008)에 따르면, 학계의 한문학 연구는 조선시대 한문학 관련 논문이 96%를 차지하고, 기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 연구는 4% 정도로,

그것도 고려 후기 몇몇 작가들에 대한 편향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편향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은 고려 후기 작가의 문집으로 오늘날 남아 전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비해 대단히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설령 남아 전하는 문집도 수록 내용이 빈약하여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동안 중요 몇몇 작가 및 중요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려 후기 문학선상에 놓여 있는 『제정집』 역시 학계의 동향과 맥락을 같이하여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구된 것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작가론, 문학론 등은 물론이고 문학사에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정집』은 양적인 면에서 소략한 편이지만, 시에서는 악부체를 제외한 여러 시체(詩體)를 두루 운용하고 있으며, 산문도 表, 箴, 銘, 記, 序, 說, 跋, 祭文, 墓誌銘 등 산문 문체를 골고루 쓰고 있다. 고려 후기 현존하는 문집에서 이처럼 시와 산문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여러 문체를 보여주고 있는 문집은 드물다.

필자는, 이렇게 다양한 문체들이 활용된 『제정집』 산문을 의미 있게 독서하여 이달충의 시대적 의식, 학문적 의식 등을 살펴보고, 절대적으로 빈약한 고려시대 한문학 연구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 이달충의 글재¹⁰⁾가 산문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의 산문 서술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에 관한 연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연구사의 공백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라고 한다.(이중문,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자료정리 과정」, 『한국한문학연구』 41집, 2008, 211-212면.)

- 10) 일반적으로 고문론은 김부식에게서 창도되어 이제현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반론인데, 이제현은 이달충의 당숙부였다. 『제정집』 서문이나 부록을 보면, 이제현이 이달충의 글재를 칭찬해마지 않았다.

2. 착종(錯綜)의 방식을 통한 풍간(諷諫)

이달충은 글자의 배치에 따른 공교함과 줄렬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錯辭工拙 或不同’¹¹⁾라고 하여 말을 만드는 데의 공교함과 줄렬함이 작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달충은 강한 경계가 필요한 글에서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으로 글자의 착종(錯綜)을 선택했다.

여기에서 착종이란 단순히 글자를 뒤섞어 모아두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사 맥락에서 ‘주장과 반주장, 긍정과 부정, 특수와 보편을 잘 꿰매어서 끊임없는 교차와 교환이 일어나게 하고, 의미상으로 그것이 때로는 확대·팽창·증식되어 자연스럽게 주제의 형상화에 일조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먼저, 착종의 수법을 가장 잘 살린, 유비자(有非子)와 무시옹(無是翁)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애오잠병서(愛惡箴并序)」를 살펴보자.

① 유비자가 무시옹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날마다 인물됨을 의론하는 우리들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옳을 사람답다고 하는 자도 있고 옳을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자도 있으니 옳은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답다고, 혹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가?”

② 무시옹이 들고는 그것에 대해 해석하여 대답하기를 “남이 나를 사람답다고 한다고 나는 기뻐하지 않으며, 남이 나를 사람답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소. 차라리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하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만 못하오. 나는 또 나를 사람답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소.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한다면 기뻐할만하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또한 두렵지할만하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한다면 또한 두

11) 『제정집』 권3, 「奇平章奉使錄序」.

려워할만하오. 기쁨과 두려움은 마땅히 나를 사람답다고 한 사람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지 여하를 살펴야 할 것이오. 그러므로 ‘오직 어진 사람이야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오. 나를 사람답다고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오?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오?”

③ 유비자가 웃으며 물러났다. 무시옹이 인하여 잠(箴)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였다.(후략)¹²⁾

이 글은 크게 ① 무시옹이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유비자의 질문, ② 人과 不人, 喜와 懼의 역학관계로 풀어낸 무시옹의 답변, ③ 잠(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에서 유비자는 무시옹에 대한 평가가 ‘사람답다(人)’와 ‘사람답지 않다(不人)’로 나누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무시옹은 ②에서 喜와 懼의 논리로 답변한다. 즉 사람다운 사람이 자기를 사람답다고 평가하거나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사람답지 않다고 평가하면 기쁜 일(喜)이다. 반면에 사람다운 사람이 자기를 사람답지 않다고 하거나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사람답다고 하면 두려운 일(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논어』 〈이인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달층은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애오(愛惡)에 대해 무시옹의 입을 빌어 자신의 생각을 설파한 것이다.

사실 이 글은 ‘유비자(有非子)’나 ‘무시옹(無是翁)’이라는 이름 설정부터 옳음과 그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다. 유비자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12) 『제정집』 권2, 「愛惡箴并序」: 有非子造無是翁曰 日有群議人物者 人有人翁者 人有不人翁者 翁何或人於人 或不人於人乎 翁聞而解之曰 人人吾 吾不喜 不人吾 吾不懼 不如其人人吾 而其不人不人吾 吾且未知人吾之人何人也 不人吾之人何人也 人而人吾 則可喜也 不人而不人吾 則亦可喜也 人而不人吾 則可懼也 不人而人吾 則亦可懼也 喜與懼 當審其人吾不人吾之人之人不人如何耳 故曰惟仁人爲能愛人能惡人 其人吾之人 仁人乎 不人吾之人 仁人乎 有非子笑而退 無是翁因作箴以自警

라는 뜻이고, 무시옹은 ‘옳은 것이 없는 늙은이’라는 뜻일 텐데, 이름의 의미에서부터 두 사람은 대칭을 이룬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주인과 손님이 되어 문답을 가설(假設)하는데 유비(有非)와 무시(無是)는 모두 실제로 있지 않는 가공(架空)의 인물로, ‘아니다’ ‘없다’고 한 것이니 사마상여(司馬相如)의 글에 나오는 ‘자허(子虛)’나 ‘무시공(無是公)’이니 하는 가설(假設)의 인물과 같다. 이 인물들은 이름에서부터 유무(有無), 시비(是非)의 대립과 착종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글의 핵심은 ‘人’과 ‘不人’자에 있다. 이 글은 무려 45번이나 人자와 不人자를 반복·착종시키면서 때로는 명사로, 때로는 동사로 활용된다. 아울러 好와 惡, 喜와 懼, 人과 不人이 끊임없이 대칭을 이루면서 진정한 ‘人(사람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人과 不人의 선명한 대비는 결국 ‘仁’의 논리로 전환된다. 즉 오직 仁者만이 진정으로 愛/惡을 할 수 있는데, 仁者가 되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잠(箴)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논어』 <이인편>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논어』의 생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외에 이달충의 논거를 보충할 만한 곳이 『논어』 <자로>에 보이는 자공과 공자의 대화이다. “자공이 묻기를, 향인이 모두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직 아니다. 자공이 묻기를, 향인이 모두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아직 아니다. 향인 중에 선한 자가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자가 미워하는 자만 못하다.(子貢問曰 鄉人皆好之 何如 子曰 未可也 鄉人皆惡之 何如 子曰 未可也 不如鄉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라는 구절이 있다.

남에 대한 평가는 여론이나 증론에 휩쓸리기 쉽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 고을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상의 선악을 평가하기에 앞서 평가자의 善과 不善에 따라 愛惡가 결정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이 구절은 衆論과 輿論을 주도하는 사람의 善/不善

여부에 따라 여론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달충은 「애오잠」에서 선과 불선에 따른 사람에 대한 愛惡를 표면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심(自警)’으로 가져오는 듯 하다. 하지만 이달충은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인 ‘애오’를 통해 인물평가의 기준, 즉 人과 不人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충의 「애오잠」에 대해서 조선 후기 실학자 박세당(朴世堂 1629~1703) 같은 이는 “이달충이 지은 「애오잠」을 읽어 보았는데, 문장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도 후세에 일컬어지는 것이 의아하였다. 이 때문에 문득 그 뜻을 본떠서 이와 같이 지어 보았다. 식자(識者)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필시 비웃으리라(得李達衷所爲愛惡箴讀之 其文非甚佳 而猶見稱於後世者爲可疑 故輒效其意而作之如此 使識者讀此文 又必笑之也)”¹³⁾라고 하며 「효애오잠(效愛惡箴)」을 지었다.

박세당의 글을 통해서 보면, 이달충의 「애오잠」이 후세에 칭찬받고 많이 읽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人과 不人, 君子와 小人, 愛와 惡를 가늠하는 것이 유자들에게 보편적인 주제로 기능할 수 있었다.¹⁴⁾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애오잠」에서 사용되고 있는 착종의 신선함 때문으로 보인다.

13) 박세당, 『西溪集』 권8, 「效愛惡箴」.

14) 전통적으로 『논어』의 생각을 이은 것으로 ‘愛惡’에 대한 「애오잠」이 주는 경계의 메시지는 조선조 유자들에게 보편적인 주제였다. 예컨대 인조 때 학자 조익(趙翼)은, 현인과 군자가 세상에 나오면 같은 덕을 지닌 사람끼리는 반드시 친하게 지내게 마련이지만, 한편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도 있어 필연적으로 그들과는 氷炭(빙탄)의 관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좋아하는 자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군자가 아니라 鄉愿(향원)일 따름이다.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반드시 좋아하고 그릇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비로소 군자일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물 평가와 맞물리는 애오의 문제는 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세당 역시 「效愛惡箴」에서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이달충의 「애오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첫째, 가상의 인물 선문자(羨門子)와 부구공(浮丘公)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이야기를 진행시킨 점, 둘째, 군자와 소인, 근심과 기쁨, 옳고 그름, 좋아함과 미워함, 선과 불선의 반대 단어들을 착중시켜 진정한 ‘군자’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점, 특히 군자와 소인이라는 단어를 40번 정도 쓰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애오잠」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다. 물론 박세당은 「애오잠」에서 주는 경계의 의미를 그대로 본받되 좀 더 다층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은 보다 풍성하다.

박세당의 지적처럼 「애오잠」이 정통 한문문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장단점을 떠나 「애오잠」에서 전해 주는 경계의 뜻이나 형식적인 착중의 방법은 후세에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惕若齋箴」도 착중을 통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불경(不敬)하지 말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썩은 새끼로 말 다루듯 조심하며, 마른 나뭇가지에 올라가듯 조심해라. 나아갈 때 물러날 줄을 알고,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라. 그러면 위태로우나 탈은 없을 것이니 생각을 늘 이에 두어라.(毋不敬 毋自欺 馭朽索 攀枯枝 進知退 安思危 厲無咎 念在茲)¹⁵⁾

불경(不敬)이 남에 대한 나쁜 형태의 발현 태도라면, 自欺는 나쁜 형태의 자신에 대한 태도이다. 썩은 새끼로 말 다루듯 한다는 것과 마른 나뭇가지에 올라가듯 한다는 것은 모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동의어이다. 不敬과 自欺, 朽索과 枯枝 등 비슷한 뜻의 글자를 착중시키거나 進과 退, 安과 危 등 반대글자를 착중시켜 척약제에게 24자로 간결하게 경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15) 『제정집』 권2, 「惕若齋箴」.

사실 김구용의 호 楊若齋는, 『주역』의 ‘군자가 낮에는 종일 쉬지 않고 힘쓰고, 저녁에는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탈이 없다(君子終日乾乾 夕惕若厲無咎).’에서 나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김구용의 호 ‘척약재’의 뜻을 그대로 살린 이 잠(箴)은 ‘척약(楊若) →여무구(厲無咎)로 의미가 수렴되고 있다. 다만, 「애오잠」이 표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성격을 띠다면, 「척약재잠」은 척약재 김구용(金九容)을 경계하기 위해 준 글로, 「애오잠」과 달리 함께 쓰여진 서문이 없어 풍성한 맛은 덜하다.

다음 장명(杖銘)을 한편 보자.

쓰면 행하고 버리면 숨는 것은 오직 나와 너뿐이로다. 위태로워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져도 부축하지 못한다면 어찌 능히 저 지팡이를 쓰리오? 이것은 선현의 장명(杖銘)인데 내가 그 뜻을 깊이 음미해 본다. 우리 왕께서 우리 공에게 지팡이를 하사함이 어찌 한갓 무의미 하리오?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로다. 영세토록 서로 전하여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잊어지고 자빠지는 짧은 순간이라도 반드시 이렇게 지팡이 역할을 하시오 (用則行 舍則藏 惟我與爾 危不持 顛不扶 焉能用彼 此前修之杖銘 余深味乎 厥旨 吾王之錫我公 豈徒然必有以 永世相傳矢不謬 顛沛造次必於是).¹⁶⁾

위 명문(銘文)은 지팡이에 새긴 일종의 기물명(器物銘)으로, 운자는 爾, 彼, 旨, 以, 是 등으로 맞췄다. 첫 두 구절은 선현의 장명이라고 밝혔듯이 위 장명은 『논어』 <술이편>에서 공자가 안연에게 했던 말이다. 공자는 안연에게 “子謂顏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그대로 지팡이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어 마지막 구절을 통해 이달충은 조차전폐의 순간이라도 반드시 장명을 명심할 것을 일직 손정평공(孫靖平公, 孫洪亮, 1287~1379)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1차적으로 지팡이를 하사한 왕에게서, 2차적으로 장명을 지은 이달충에게서 손홍량의 삶도 안연의 그것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전해

16) 『제정집』 권2, 「與一直孫靖平公賜杖銘」.

지고 있다. 이 장명 역시 用과 畝, 行과 藏 등의 반대어, 危와 不持, 顛과 不扶 등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착중시킴으로써 강한 경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명문(銘文)과 잠문(箴文)은, 잠은 관직과 관련하여 낭송하고 명은 기물에 쓰는 것으로 명칭과 용도는 다르지만,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같다. 특히 ‘잠문은 풍간의 효과를 높이고 읽어서 입과 귀에 순하며 기억에 편리하도록 보통 4언의 운문으로 짓는다.’¹⁷⁾고 한다. 이달충은 잠문과 명문에서 풍간의 효과를 높이고 촌철살인 격의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동일 글자나 비슷한 뜻의 글자의 반복 배치, 반대 글자나 반대 뜻을 지닌 글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착중의 수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다만, ‘섞어서 모아 놓는’ 이러한 착중의 수법은 때로 의미 수렴이 다소 산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달충은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주제의 일관된 형상화를 위해 『논어』같은 전고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상으로 요약해 보면, 이달충은 착중의 수법을 주로 잠문이나 명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려는 상황에서 풍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때 착중의 수법은 두 가지 방향성을 띠는데, 첫째는 전체 서사 맥락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단어와 반대 단어를 상반되게 배치하여 팽팽한 긴장감을 준다. 이러한 긴장감을 통해 주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명한 대조를 보여 주어 강한 인상을 남긴다. 둘째는 동일 단어나 비슷한 뜻의 단어를 반복해서 배치함으로써 의미의 심화 효과를 이끌어 낸다.

글쓰기에서 글자의 배치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느 작가나 당연할진대, 착중의 방식이 이달충만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달충의 글만큼 동일 글자나 비슷한 뜻의 글자 혹은 반대 뜻의 글자를 전체 서사 맥락에서 수십 번씩 의도적으로 반복·배치해서 의미의 심층적

17)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343면.

효과를 노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달충의 착종의 방식은 단순히 상반되는 ‘글자들을 뒤섞어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반주장, 긍정과 부정, 특수와 보편을 잘 꿰매어서 끊임없는 교차와 교환이 일어나게 하고, 의미상으로 그것이 확대·팽창·증식되어 자연스럽게 주제의 깊이 있는 형상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상반되는 글자를 착종시키는 이유가 상반되는 의미를 되새기며 경계하도록 하는 공간에 있다는 점도 이달충 글쓰기의 한 특징이 될 수 있겠다.

3. 과제(破題)의 방식을 통한 제목의 재해석

과제(破題)란 원래 글의 첫머리에 그 글제의 뜻을 들추어 내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시험 답안지를 쓸 때, 특히 詩나 賦를 쓰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옛날 중국 당송시대에 과거시험 답안지의 첫머리에서 시제의 의미를 먼저 설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명청시대 팔고문에 이르러서는 고정된 법식이 되었다. 과제라는 것이 제목의 중요한 내용을 제 일단에서 한 두 줄로 풀이하는 것에서 시작된 만큼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과거시험에서 주어진 시제의 의미를 글의 첫머리에서 먼저 설파하는, 일종의 ‘시제 파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과문의 구성은 여러 형식이 있었으나 과거 당락은 주로 과제에 있었다고 한다. 채점관이 많은 시험지를 일일이 보기 힘이 들어 과제만 보고도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글을 짓는 데에 제목에 대한 파악과 이해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했다.

연암 박지원은 글을 잘 짓는 것을 병법의 제 요소와 과정에 비유하여 논한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에서 제목을 ‘적국(敵國)’으로, 과제(破題)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으로 비유한 바 있다.¹⁸⁾ 적국은 공략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물론 적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타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적국’의 존재와 ‘적국’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적국으로 표현된 제목에 대한 파악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목이 중요하다 보니, 입제(入題), 파제(破題), 승제(承題), 회제(回題), 해제(解題) 등의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다. 입제란 글을 쓸 때 제목에 걸맞게 글을 시작하는 것이며, 파제란 전범서들에서 보이는 제목의 원형적인 뜻이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고¹⁹⁾, 승제란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고, 회제란 제목의 원 뜻을 다시 한 번 돌이키는 확인하는 것이고, 해제란 제목의 모든 의미를 총 정리하여 작가가 제목을 재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달충의 산문 중에는, 入題, 破題, 承題, 回題, 解題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제목에 내포된 원형적 의미를 파헤쳐 설명하면서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제목을 재해석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대상에 대한 전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된 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관풍루기(全州觀風樓記)」, 「동재설(動齋說)」 등이 그렇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전주관풍루기」에서는 ‘觀과 ‘風’의 의미를, 「동재설」에서는 ‘動’의 뜻을 설명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되고 있다.

먼저 「전주관풍루기」를 살펴보자.

① 지정(至正) 정미년(丁未年, 고려 공민왕 36년 1367년) 판사 한공 계상(系祥)이 전주목사로 나갔다. 정사가 너그럽고 여진 것을 숭상하니 백성들이 원망이 없었다. 1년이 채 안되어 백성들이 여유가 생기자 고을의

18) 박지원, 『연암집』, 『騷壇赤幟引』: 善爲文者 其知兵乎 字譬則士也 意譬則將也 題目者 敵國也 掌故者 戰場墟壘也 東字爲句 團句成章 猶隊伍行陣也 韻以聲之 詞以耀之 猶金鼓旌旗也 照應者 烽埃也 譬喻者 遊騎也 抑揚反復者 鏖戰撕殺也 破題而結束者 先登而擒敵也

19) 본 논문에서는 제목에 내포된 의미를 파헤친다는 넓은 의미에서 ‘파제’라는 용어를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노인들에게 자문하기를 “당신들 고을은 옛날 도읍지였습니다. 고로 그 이름이 일방에서 으뜸이며 안부(按府)의 감영이 되었습니다. 왕명의 반포가 이곳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민정의 소송하는 것이 여기에 모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절이 여름이 되면 관사가 낮고 좁아서 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의 북쪽에 ‘녹군헌(綠筠軒)’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지만 매우 좁고 막혀있어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비용을 줄 테니 정자를 누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그러자 모두들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분주하게 장인들을 모아서 마룻대와 추녀를 옮겨와 흙칠을 하고 기와를 올리며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더니 며칠 안되어 완공을 보고하였다. 올라가 보니 환하고 널찍하였다. 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미 누대가 완성되었는데 이름이 없고 기(記)가 없다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고 편지로 계림윤(鷄林尹)인 나에게 고하기를 두 번이나 하였다.

②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이 도를 안찰하고 이 감영을 맡았을 적에 더위에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고을의 남쪽에 ‘남고사(南高寺)’라는 절이 있어 그곳으로 옮겨가 우거한 지 며칠 만에 회복했으니 한공의 뜻이 바로 내 뜻이로다. 다만 이른바 기(記)라는 것은 그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내가 그 누대에 올라가 창제가 어떠한지를 본 적이 없으니 어찌 생각만으로 글을 짓겠는가?”하였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기록할 만한 것이 있도다. 명릉(明陵) 갑신년(甲申年, 1344년)에 한공의 선대인께서 이조판서가 되어 인재선발을 주관하셨는데 내가 당시 응교(應敎)로서 조석으로 좌우에 있으며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그분의 속마음이 넓고 도량이 넓게 휘히 트여서 사람의 재주를 쓰는 것이 각각 적합하여 나라의 기틀에 기둥과 주춧돌이 되고 덕화에 단청을 입혀 유지하고 능히 이으셨으니 그 큰 공훈과 호방한 기상과 쌓은 선경(善慶)이 그분의 아들에게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한 일을 한 누대로 옮겼다면 나는 그 누대가 반드시 넓고 탁 트였을 것이고, 기둥과 주춧돌의 견고하고 완전함은 유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단청의 빛나고 아름다움은 윤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겠으니 이것은 가히 기록할만하다. 하여 내가 편액하여 ‘관풍(觀風)’이라 하고 그에 따라 설(說)하노라.

③ ㉠ ‘풍(風)’이라는 것은 소리요, 가르침이요, 법(法)이요, 고(告)이다. 무릇 위사람을 풍자하고 아랫사람을 교화하는 것에는 관계가 없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는 풍이 하는 것임을 알겠으니 풍(風)은 보지 않을 수 없고, 관(觀)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풍(風)을 지상에서 보면 사방을 살피서 가리

침을 베풀고, 풍(風)을 물위에서 보면 천제에게 제사 지내고 사당을 세우니 선왕이 그대로 본받아 하였다. 또한 항괘(恒卦)의 뇌풍(雷風)과 익괘(益卦)의 풍뢰(風雷)같은 경우는 서서 방위를 바꾸지는 않지만 허물이 있으면 곧 고친다. 소축괘(小畜卦)의 천(天)과 중부괘(中孚卦)의택(澤)은 반드시 그위를 보아서 문덕을 아름답게 하고 옥사를 의론하여 죽임을 늦춘다. 고괘(蠱卦)의 ‘백성을 진작시켜 덕을 육성하는 것’과 손괘(巽卦)의 ‘명령을 거듭하여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본 바가 있어 군자가 그대로 본받아 하였다. 고로 부를 안찰하는 것을 일러 ‘관풍’이라 하니 그 말은 임무가 중요하지 않은가?

㉠ 또한 대지의 숨소리와 온갖 구멍에서 나는 바람소리는 만 가지로 같지 않고, 나무가 곧 뿔히고 벼가 혹 다 일어나는 것은 감응한 바가 있어서이다. 훈풍이 불어 백성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따스한 바람이 가시나무속으로 부는 것은 기르는 바가 있어서이다. 혹 나뭇가지가 울지 않고 풀이 반드시 눕는 것은 화합함이 있는 것이요, 순함이 있는 것이니 이것 또한 그러한 까닭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풍은 곧 기(氣)이다. 모든 나의 진퇴와 주선, 시행과 처리, 회노애락, 말소리와 웃는 모습이 모두 기이다. 기는 풍이니 말산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면 화육(化育)에 참여하여 돕고, 천지를 다스리니 어찌 작은 흠이 있겠는가? 고로 중화(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제 자리에 서고 만물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 누대에 오르는 자가 능히 자신으로부터 만물에 미치고 만물로부터 자기에게 이르러 대화(大和)를 지켜서 중도를 얻음이 있다면 내 말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 혹 힐문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한공의 뜻은 더위를 피하는 데 있는데 그대의 말은 서늘한 것을 취하고 더위를 없애는 말을 생략하였고, 한공이 칭찬 것은 기(記)요, 설(說)이 아닌데 그대의 말은 처음에는 기(記)인 듯하더니 설(說)로 끝냈다.”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내가 기(記)를 쓰는 뜻을 기록했고 끝에는 내가 편역한 뜻을 설명했다.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지만 서늘한 것을 취하고 더위를 없애는 것을 생략했다는 말은 그릇된 것이다. 길에서 누룩 실은 수레를 만나면 침을 흘리고, 앞에 매화나무 숲이 있으면 목마름을 그치게 한다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누대의 편역을 보면 만족스러울 것이니 어찌 반드시 서늘하다 말하고, 차갑다고 말한 후에야 그것이 가능하겠는가.”했다.²⁰⁾

20) 『제정집』 권3, 『全州觀風樓記』: 至正丁未 判事韓公系祥出牧于全 政尙寬仁 人

「전주관풍루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① 관풍루를 짓게 된 동기, 역사 과정, 기문청탁 - ② 관풍루를 직접 보지 않고도 기문청탁을 수락한 이유 - ③ 관풍루의 '관풍'의 의미 설명 - ④ 기문에서 설문으로 옮겨간 것에 대한 타당성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은 관풍루를 짓게 된 동기 및 역사의 과정, 기문 청탁 등에 관련된 내용이며, ②는 관풍루가 완성된 후 이달충에게 기문을 청탁해 왔지만, 이 달충은 누대에 올라가 그 창제가 어떠한지를 본 적이 없어서 기문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윽고 기문을 청탁해 온 한계상 선대인의 도

無怨讟 未期而民有餘力 咨于邑之鰲者 惟爾之州 故所都也 故其號冠於一方 而案府營焉 王命之頒 莫不始于此 民情所訟 莫不萃于茲 時當暑月 館宇卑湫 無以避炎溽 廳事之北 有小亭曰綠筠軒 甚阨塞不堪處也 官給其費 易亭而樓之可乎 咸曰固所望也 於是趨奔走聚工 徙棟宇而墁瓦之 猶恐不及 不日而告成 登而覽之 廓如也 公喜且曰 既樓矣 不可以不名不記 書諭鷄林尹李至再 余心語之曰 余嘗案是道主是營 病暑而幾殆 州之南 有寺曰南高 移寓幾日而復命 韓公之意則余志也 但所謂記者 記其事也 余未嘗登是樓觀其創制之如何 豈可臆而文之乎 然且思之 所可記者有焉 粵明陵甲申 韓公先大人爲冢宰 主銓選 余以應教 朝夕左右 有所觀感者多矣 其堂府恢弘 度量軒豁 用人之材 各有所適 柱石邦基 丹青德化 扶持肯構 而其功勳之大 氣象之豪 善慶之積 鍾于厥嗣 以其所爲 移于一樓之構 則吾知其必恢弘也 必軒豁也 柱石之堅完 有所維持 丹青之煥赫 有所潤色 是可記 而吾之扁則曰觀風 從而爲之說曰 風者 聲也教也法也告也 凡所以刺上化下 無所關係 而知國興衰者 風之爲也 風不可以不觀 觀不可以不察 觀乎地上 則省方設教 觀乎水上 則享帝立廟 先王以之 又若恒之雷風 益之風雷 則可以立不易方 有過則改 小畜之天 中孚之澤 必觀其上 以懿文德 議獄綏死 蠱之振民有德 巽之申命行事 皆有所觀 君子以之 故案部者 謂之觀風 其爲任重也否乎 抑亦大塊之噫 萬竅之號 有萬不同 木之斯拔 禾或盡起者 有所感也 薰而解民慍 凱而斂棘心者 有所養也 或條不鳴 草必偃者 有所和也 有所順也 斯亦不可不觀其所然也 風則氣也 凡吾之進退周旋 施爲注措 喜怒哀樂 聲音笑貌皆氣也 氣則風也 發而皆中節 則參贊化育 彌綸天地 寧有小欠 故曰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登是樓者 有能自我而物 自物而我 保合大和 有得乎中 則吾之言 未甚爲非也 或有詰之者曰 韓公之意則在乎避暑 子之說則略於取涼去暑之語 韓公請之則記也 非說也 子之言則始若記而終於說也 曰 始記吾之所以爲記之意 終說吾之所以爲扁之義 子之言則然矣 其曰略於取涼去暑之語則非也 子不知夫道逢麴車而流涎 前有梅林而止渴者乎 觀樓之扁則足矣 何必曰其涼曰其凄而後可哉

량을 이달층이 익히 알고 있기에, 한계상이 선대인의 도량을 계승하였다면 누대를 직접 보지 않아도 미루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문청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①에서 ②까지는 누정기문의 일반 법칙, 즉 ‘누정기’라는 것은 누정의 공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누대에 올라가 창제가 어떠한지를 적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③부터는 편액인 ‘관’과 ‘풍’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체가 說체로 바뀌고 있다. 처음에 ㉠에서 ‘觀風’의 ‘風’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聲, 敎, 法, 告’로 정의하면서 시작한다. 이어서 『역경』에서 의미를 취하여 ‘관풍’을 ‘부를 안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 고을을 안찰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입제(入題), 과제(破題), 승제(承題)적 성격을 아우르는 부분이다. 이어서 ㉡에서 본격적으로 과제(破題)에 들어가는데, 풍의 의미를 다각도로 파헤치고 있다. 풍의 의미를 감응하는 것(所感), 기르는 것(所養), 화합하는 것(所和), 순함이 있는 것(所順)라고 하여 임금의 덕에 감응하여 백성이 교화되고 부모를 봉양하는 풍의 실천항목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은 최종적으로 ‘관풍’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으니 해제(解題)적 성격을 갖는 단락이다. 모든 氣가 風이 되는데, 기가 절도에 맞으면 중화(中和)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관풍루에서 대화(大和)와 중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관풍루에서 대화(大和)와 중도를 얻을 수 있는 수령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관풍(觀風)에 ‘중화(中和), 대화(大和), 중도(中道)’라는 새로운 추가적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면서 관풍루는 더 이상 한갓 더위만을 피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누대가 아닌, 감응, 봉양, 화합, 순함을 모두 아우르는 ‘중화루(中和樓), 대화루(大和樓), 중도루(中道樓)’가 되는 것이다.

글의 분량상 누정기문적인 성격의 ①, ②와 설체의 성격인 ③, ④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글의 핵심 의미는 ③과 ④에 묘미가 담겨있다. 이달층은 ‘관’과 ‘풍’의 의미를 오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 등에서 전고를 취하여²¹⁾ 대화(大和)의 세계를 이끌어냈다. 관풍 속에 숨겨있는

대화의 세계 속에서는 더 이상 더위를 걱정할 것이 없다. 즉 관풍이라는 두 글자는 ‘앞에 매화나무 숲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목마름이 그치게 하는 것(삼국시대 조조 관련 고사)과 같은 시원함의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결국 「전주관풍루기」는 『시경』, 『서경』, 『역경』 등의 각종 난해한 전고를 써서 ‘관’과 ‘풍’의 의미에 심오함을 부여하였고, 그 과제와 과정에서 이루어 낸 제목의 의미 파악을 통해 관풍루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동재설(動齋說)」에도 보인다.

① 상시(常侍) 백공(白公) 문보(文寶, ?-1374 공민왕 23)가 일찍이 동(動)을 설(說)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내가 감히 짓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 지금 공이 관동의 관찰사로 떠나게 되자 군자들은 모두 시를 짓는데 나는 우환이 있는 이래로 시가 더욱 졸렬해져서 능히 읊지 못하고 우선 동재설(動齋說)로 작별을 하여 하루저녁의 이야기꺼리를 대신하니 보는 자는 꾸짖지 말기를 바란다.

② ① 동(動)이라는 것은 길흥(吉凶), 회린(梅吝)이 말미암아 생겨나는

21) 특히 관풍의 뜻을 파헤치는 ③부분에서는 전고가 다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경 중에서 특히 『시경』, 『서경』, 『역경』에서 인용된 전고가 특히 많다. ‘肯構는 『서경』 <大誥>에 나오는 말, ‘觀乎地上 則省方設教는 『역경』 風地觀의 ‘象曰 風行地上觀 先王以 省方觀民 設教(상전에 이르길, 바람이 땅위를 다니는 것이 관이니 옛 임금들이 이로써 방소를 살피고 백성을 살펴서 가르침을 베푼다.)’에서 나오는 말, ‘觀乎水上 則享帝立廟는 『역경』 風水渙의 ‘風行水上渙 先王以享于帝立廟(바람이 물 위를 가는 것이渙이다. 先王이 그로써 天帝를 祭祀지 내고, 廟를 세운다.)’에서 나온 말, ‘議獄緩死는 『역경』의 ‘象曰 澤上有風 中孚 君子以 議獄緩死(못 위에 바람이 있는 것이 중부니 군자가 보고서 옥사를 의논하여 죽임을 늦춘다.)’에서 나온 말, ‘木之斯拔 禾或盡起者는 『서경』 <금동(金縢)편>에 나오는 말, ‘薰而解民慍는 순(舜)임금이 오현금(五絃琴)을 타면서 부른 이른바 『시경』 <남풍시> “南風之薰兮 可以解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溫兮”와 관련된 말, ‘凱而觶棘心者는 『시경』 凱風自南 吹彼棘心(따스한 바람 남쪽에서 불어와 저 가지 속으로 불도다.)’에서 인용한 것, ‘條不鳴 草必偃’은 『시경』 ‘草上之風草必偃 誰知風中草復立’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 인용된 글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달충의 산문은 전고 사용이 많고 간소한 특징이 있다.

것이니 비록 성인일지라도 일찍이 여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예가 아니면 하지 말고 착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 고요할 때에 성(誠)과 경(敬)으로 기르지 않으면 그 발산하는 것이 혹 조금하고 망령된 데로 돌아갈 것이니 ‘동(動)의 때’라는 뜻이 대단히 큰 것이도다! 건괘(乾卦)의 상(象)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니 군자는 이를 보고서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운행하되 건실한 것은 움직임의 지극한 것이니 군자가 그대로 하면 힘쓰고 또한 쉬지 않는 것이다.

① 그러나 오히려 써서는 안 되는 잠(潛)이 있고 후회가 따르는 항(亢)이 있다. 그러므로 혹 나타나 발에 있기도 하고, 뛰어서 못에 있기도 하나 한 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힘쓴 연후에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적절한 때가 아니면 움직임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동(動)에 잘 처하는 자는 반드시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때를 거스르지 아니 하니 때라는 것은 기미(幾微)이다. 기미를 보아서 움직이는 이는 오직 군자뿐인제!

③ 직산(稷山) 백상시(白常侍)가 그 거처하는 곳을 ‘동재(動齋)’라 편액 하였으니 그 자처하는 것이 크지 않은가. 내가 들으니, 동(動)과 정(靜)의 이치는 끝없이 순환하여 고요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고요하여 서로가 그 뿌리가 되어 터럭만한 틈도 없으니 한결같이 고요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한결같이 움직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공이 동(動)을 취한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생각해도 알지 못하여 이에 ‘동(動)자를 벽에 써놓고 그 뜻을 보고 묻은 이가 있으면 “아무 공의 편액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공이 어질고 후한 데는 지나치고 용맹하고 과감한 데는 부족하니 장차 스스로 면려하려는 것입니까?”하고, 어떤 이는 “저것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또한 이치인데 공의 명망이 날마다 높아져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동(動)으로 말미암아 정(靜)을 구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④ “아니다. 앉아라. 내가 그대에게 얘기하겠다.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道)’라고 하는 것이 동과 정(靜)의 뜻이다. 성인은 양을 귀하게 여기고 음을 천하게 여기니 장차 성인의 무리가 되려는 자가 어찌 힘 쓸 바를 알지 못하는가? 공의 동(動)은 안으로는 내 입금을 요임금과 같이 만들고, 밖으로는 내 백성을 요임금의 백성같이 만들어서 큰 피를 퍼서 밝히고 지극한 다스림에 넉넉하게 노닐어 그 다함이 아니면 멈추지

않으니 그 동(動)함이 어떠하다 이르겠는가. 그러나 이 또한 공의 동(動)이 될 수는 없다. 이 집에 거처할 때에 옷깃을 바르게 하고 얼굴을 엄숙히 하여 고요히 생각하여 일삼는 것이 없이 꿈쩍 않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 정(靜)하다는 것만 알고 부동(不動)의 동(動)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⑤ 공은 일찍이 고요하고 편안한 곳을 정한 것을 통해 대화(大化) 성신(聖神)의 나라에서 노닐고 절대적 선[至善]의 집에 주인이 되어 쓰임을 구하였는데 하루는 임금이 명광전(明光殿)에 앉아서 공을 불러보고 천하의 일을 물으셨다. 공의 대답이 임금의 뜻에 맞자 임금이 심히 기뻐하며 말하기를 “집이 장차 크게 쓰겠다.”라고 하시며 중화(中和)의 술을 하사하시니 공이 다 들이켜고 취하여 돌아와 거처하는 재(齋)에서 쉬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²²⁾

「동재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 전별의 뜻으로 「동재설」이라는 설문을 짓게 된 이유, ② ㉠ 동(動)의 중요성 ㉡ 동(動)의 시기(動之時)의 적절성, ③ 직산

22) 『제정집』3, 「動齋說」: 常侍白公文寶 嘗有說動之命 而余不敢者久矣 今公之存撫關東也 君子皆有詩 余有憂患來 詩益拙 不能爲之歌詠 姑以動齋說爲別 以代一夕之話 觀者幸毋謂 白公號淡庵 諡忠簡 動也者 吉凶悔吝之所由生 雖聖人 未嘗不致意於此 故非禮則勿之 慮善則以之 方其靜也 不養之以誠敬 則其發也 或歸於躁妄矣 動之時義盛矣哉 乾之象曰 天行健 君子以 自強不息 行而健 動之至也 而君子以之 則強且不息 然猶有勿用之潛 有悔之亢 故或見而田 或躍而淵 且惕且厲 然後可以有爲也 苟非其時 動必殆矣 善處動者 必待時 必順時 時者 幾也 見幾而動者 其惟君子乎 稷山白常侍扁其所居曰動齋 其所以自處者不既丕乎 余聞之 動靜之理 循環無端 靜而動 動而靜 互爲其根 而無毫髮之間 一於靜不可 一於動亦不可 而公之所以取動者何居 余思之不得 乃題動于壁 而觀其義有問則曰 某公之扁 或曰 公過於仁厚 而歉於勇敢 其將以自勵乎 或曰 欲彼必由此 亦理也 公之名曰騰而不可掩 故將由動以求靜也 非也 居 吾語子 一陰一陽之謂道 動靜之義也 聖人貴陽而賤陰 將爲聖人之徒者 寧可不知其所勸哉 公之動也 內而堯吾君 外而堯吾民 敷闡大猷 優游至治 不極不止 其爲動謂如何哉 然亦不足爲公之動 公之居是齋也 整襟肅容 寂無思爲 凝然而坐 人知其爲靜 而不知其有不動之動也 公嘗由定靜安之鄉 遊于大化聖神之國 主至善之家而求用焉 一日上御明光殿 召見公 問以天下之故 對稱旨 上甚悅曰 朕將大用 賜以中和之酒 公輒釀而醉 歸休于所居之齋 或曰命之矣

백상시가 ‘동재’라고 편역한 이유에 대한 추측, ④ 백상시가 편역한 ‘동’의 진정한 뜻 해명-‘부동(不動)의 動, ⑤ 하늘의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에서는, 유자들이 전별을 할 때는 보통 시를 짓는 것이 관례인데, 이 달충은 예전부터 백문보로부터 ‘動’에 대해 설문을 지으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시 대신 동재설로 대신하는 상황을 전해준다. 이 부분은 序의 성격이 강하다. ②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설문이 시작되는데, 먼저 ② ㉠에서 길흥과 회린(梅畝)이 모두 모두 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의 적절한 시기’가 중요함을 말한다. 이어서 ㉡에서는 동의 적절한 시기를 부연 설명하면서 진정으로 동에 잘 처하기 위해서는 ‘潛과 宄’를 잘 고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②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설명이므로 입제, 과제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동에 대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③에서는 백문보가 편역을 ‘동재’라고 한 까닭을 이리저리 추측해 본다. 그 근본적인 의문은 動과 靜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는데, 백문보는 ‘동’만을 썼다는 데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혹자는 ‘용맹하고 과감한 것이 부족해서 스스로 동을 면려하기 위해 서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동으로 말미암아 궁극에는 靜을 구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③부분은 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며 부연설명하고 동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일종의 승제(承題), 회제(回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달충은 ④에서 백문보만의 동의 의미를 해석해 낸다. 서재에 거처할 때 엄숙하고 고요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不動, 즉 靜만 있음을 알고 不動이지만 動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동’으로 편역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不動의 動이란 것은, 서재에 있을 때 몸은 부동이지만 마음이나 정신은 동적인 ‘자강불식’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일 터이다. 결국 백문보의 동은 ‘부동의 동’의 의미였던 것이다. 이 해석은 일반적인 동의 의미 파악이 아니라 백문보가 추구하는 실제적인 동의 의미, 동의 활용 등을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제 부분이다. ⑤부분에서는 백문보

식의 動이 가까이는 임금의 뜻에 맞고 나아가서는 하늘의 명에 걸맞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 글 역시 ‘動의 일반적인 뜻을 파헤치는 ②의 ㉠, ㉡에서 전고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시 『서경』, 『역경』 등에서 悔吝, 慮善, 潛龍勿用, 亢龍有悔, 見而田, 躍而淵 등등의 개념들이 동원되고 있다. 제목의 뜻이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 부분에서는 권위 있는 근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고 사용이 많은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사서삼경 등 전범이 될만한 경서들에서 근거가 동원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이달층은 이들 경서 중에서도 더욱 상고적인 경서들을 인용하고 있음이 눈에 띄며, 과문체의 글이 아닌 일반 산문에서 전체 글 구성을 과제의 형식으로 짜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리하자면, 과제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이달층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목 글자를 깊이 있게 설명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경, 그 중에서도 특히 『역경』, 『서경』, 『시경』 등 상고적인 글의 전고 사용이 많다. 둘째, 혹자를 가설하여 묻고 답하는 질문방식이 사용된다. 이는 설명의 오류를 방지하거나 미연에 의혹을 제거하는 데 혹자를 가설하여 묻고 답하는 질문방식이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에서 모든 작가들에게 제목의 중요성은 인지되어 있었을 터이고, 부분적으로 과제의 방식을 도입하여 글을 쓰는 것 또한 일반적일 수 있다. 다만 「관풍루기」는 觀風樓가 결과적으로 중화루(中和樓), 대화루(大和樓), 중도루(中道樓)의 의미를 획득하기까지 전체적인 서사가 ‘관풍’의 의미를 찾는 데 있었고, 「동재설」은 ‘動의 의미를 탐색하기 시작해서 ‘不動의 動 혹은 ‘靜 속의 動이라는 결론을 내기까지 전체적인 서사가 ‘動의 의미를 설파하는 데 있었다. 이런 전체적인 서사 맥락에서 이달층이 과제의 방식을 응용했다는 점에서, 과제의 방식을 이달층의 산문 서술방식의 한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결론

이상으로 이달충의 산문 서술방식을 살펴보았는데, 이달충은 주요하게 착종의 서술방식과 파제의 서술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촌철살인 격의 일침을 가하는 경계의 글들에서는 주로 착종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공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장과 반주장, 긍정과 부정의 의견을 모아 놓고 반대말이나 혹은 비슷한 말을 착종시켜 주제의 형상화를 돕고 있는데, 이러한 착종의 방식은 의미의 심화 효과뿐만 아니라 선명하고 강한 인상을 주기에 적절한 방식이었다. 한편 논리적 전개를 요구하는 설체(說體) 형식의 글에서는 파제의 방식을 선호했다. 글의 전체 구성에서 사용되는 파제의 방식은 직접적으로 제목의 뜻과 의미를 설명해 내고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피는 데 적합한 방식이었다. 이때 착종의 방식에는 사서 중에서 특히 『논어』의 전고가, 파제의 방식에는 오경 중에서 『역경』, 『서경』, 『시경』의 전고가 다용되고 있었다.

다만 글쓰기에서 글자의 배치에 신경을 쓰는 것이나 제목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어느 작가나 당연할진대, 착종의 방식이나 파제의 방식이 이달충만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달충의 글만큼 동일 글자나 비슷한 뜻의 글자 혹은 반대 뜻의 글자를 수십 번씩 글 전체에 의도적·반복적으로, 혹은 상반되게 배치해서 심층적 공간의 효과를 노리는 식의 ‘착종 방식’을 활용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전체적인 서사 맥락에서 글의 시작과 결론이 ‘파제’에 달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제 방식’ 역시 이달충 글쓰기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착종과 파제의 방식이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다. 이론적으로는 두 방식이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적어도 이달충의 산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동재설」의 경우 혹은 動과 不動의 착종 방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動의 의미를 순차적·심층적으로 설파하여 ‘不動의

動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서 글자의 착종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서사 맥락에서 착종의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애오잠」의 경우는 글 전체의 서사가 人과 不人을 착종시킴으로써 오는 긴장관계를 통해 ‘진정한 人’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다.

착종이나 과제(破題)의 방식 이외에도 이달충의 「애오잠」, 「전주관풍루기」, 「題金案廉詩卷後跋」(『제정집』권3)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한 강조의 수법도 보이며, 「奇平章奉使錄序」(『제정집』권3), 「贈羅中正詩序」(『제정집』권3)등에서는 우언 사용을 통한 풍자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방법들은 전면적이 되기보다 부분적 특성이어서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이달충은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 자주국으로서 고려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현실 대응 방식의 하나로 성리학의 대의명분을 선택했다. 즉 유가의 현실정치에 기대어 피폐해져 가는 고려왕실을 세우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의 사상이 『제정집』 속에 담겨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정집』의 연구는 고려후기 성리학과 고문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전해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제정집』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이는 차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정 이달충(李達衷, 1309~1385)의 『제정집(霽亭集)』 산문 분석을 통해 이달충 산문의 주요 서술방식을 밝히는 데 있다. 이달충은 주요하게 착종(錯綜)의 서술방식과 과제(破題)의 서술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존철살인 격의 일침을 가하는 경계심을 주는 글들에서는 주로 착종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풍간(諷諫)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서사 맥락에서 주장과 반주장, 긍정과 부정의 의견을 모아 놓고 반대말이나 혹은 비슷한 말을 착종시켜 주제의 형상화를 돕고 있다. 이러한 착종의 방식은 의미의 심화 효과뿐만 아니라 선명하고 강한 인상을 주기에 적절한 방식이었다.

한편 논리적 전개를 요구하는 설체(說體) 형식의 글에서는 제목의 의미를 파헤치는 파제의 방식을 선호했다. 글의 전체 서사 맥락에서 사용되는 파제의 방식은 직접적으로 제목의 뜻과 의미를 설명해 내고 그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살피는 데 적합한 방식이었다. 이때 착종의 방식에는 사서 중에서 특히 『논어』의 전고가, 파제의 방식에는 오경 중에서 『역경』, 『서경』, 『시경』의 전고가 다용되고 있었다.

글쓰기에서 글자의 배치에 신경을 쓰는 것이나 제목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어느 작가나 당연할진대, 착종의 방식이나 파제의 방식이 이달충만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달충의 글만큼 동일 글자나 비슷한 뜻의 글자 혹은 반대 뜻의 글자를 수십 번씩 글 전체에 의도적·반복적으로, 혹은 상반되게 배치해서 심층적 풍간의 효과를 노리는 식의 ‘착종 방식’을 활용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전체적인 서사 맥락에서 글의 시작과 결말이 ‘파제’에 달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제 방식’ 역시 이달충 글쓰기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다.

착종이나 파제의 방식 이외에도, 이달충의 다른 산문들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한 강조의 수법, 우언 사용을 통한 풍자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방법들은 전면적이라기보다 부분적 특성이라서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주제어: 서술방식, 착종, 파제, 풍간, 설체, 전고(典故)

<참고문헌>

- 이달충, 『霽亭集』
박세당, 『西溪集』
박지원, 『燕巖集』
김동욱, 「제정 이달충의 생애와 문학세계」, 『어문학연구』 4, 상명대학교 어문학 연구소, 1996.
김동욱, 『고려 사대부 작가론』, 박이정, 2004.
김성언, 「이달충의 삶과 시(其一)」, 『한국한시연구』 3, 1995.
김진경, 「고려시대 사부 연구」,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박영민, 「여성화자의 유형과 존재론적 의미-고려시대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2002.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이정자, 「제정공 이달충문학」, 건국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2.
이정자, 『제정공 이달충문학』, 국학자료원, 2006.
이종문,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자료정리 과정」, 『한국한문학연구』 41집, 200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중세후기 문학』 4판, 지식산업사, 2005.
최경환, 「이달충의 〈村中四時歌〉와 연작시의 구성원리」, 『외대논총』 19,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style of Jejong(霽亭) Lee dalchung(李達衷)'s prose

Kim, youngmi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laborate on the major narrative style of Lee Dalchung(李達衷, 1309-1385)'s prose through the prose analysis of his own work, 'Jejongjip(霽亭集)'. He utilizes the method of narration such as 'mixup'(錯綜) and 'explanation'(破題).

The way of mixup(錯綜) is mainly used to give the strong alert to readers. To maximize the effect of 'satire'(諷諫), it helps to embody the theme by selecting arguments and anti-arguments or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and arranging synonym and antonym. Also, this is the proper way to deepen the meaning as well as to bring the clear and sharp impression to readers.

Meanwhile, in the contexts of Seolche(說體) style requiring the logic process the specific means, explanation(破題) is preferred, drawing the meaning and definition of title directly plus investigating how to apply this meaning into the text. Here, the quotation is made actively use of, which means that mixup is referred in Noneo(論語) and explanation, in Yeokkyeong(易經), Seokyeong(書經) and Sikyeong(詩經).

Keywords: narrative style, mixup, explanation, satire, Seolche(說體),
an authentic precedent

김영미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ijiu98@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